


보도자료 2013. 2. 14.	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대 법 원 Supreme Court of Korea </div>	
	담당부서	인사총괄심의관실
	담당자	제1심의관 이효제 (☎3480-1274) 제2심의관 배용준 (☎3480-1289)
	공보관실 ☎ 3480-1451	

※ 2013. 2. 15.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대법원,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 단행

- 대법원은 2013. 2. 14.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865명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2013. 2. 25.자로 단행하였음
- 이번 인사에서 대법원은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, 지방법원급 소규모 전문법원장인 지방권 가정법원장에 경륜이 풍부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보임하였고, 또한 지역법관제도 개선을 위하여 지역법관의 권역 외 근무를 허용하고 지역법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권역에 경향교류 법관을 많이 배치하였음

1. 인사의 규모

가. 법관 전보인사 : **865명**(가정법원장 **3명** 포함)

- 지방법원 부장판사 226명 및 가정법원장 3명
 - 연수원 27기(사시 37회)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되었음.
 -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합의부장은 연수원 20~21기 부장판사들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고, 서울 시내 나머지 법원의 합의부장은 연수원 22~23기 부장판사들까지 진입·구성하게 되었음
- 고등법원 판사 24명

- 사법연수원 교수 13명, 재판연구관 36명
- 고등법원 배석판사 44명, 지방법원 판사 519명

다. 시행일자 : 2013. 2. 25.자

2. 인사의 특징

가. 지방권 가정법원장 신규 보임

-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(위원장 고현철 전 대법관)는 2012. 11. 12. 법관 인사 이원화제도의 시행에 따라 고등법원 부장판사만을 지방법원장에 보임하여 온 기존의 법원장 보임 방식을 개선하여, 지방법원급 소규모 전문법원장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외에 지방법원 부장판사도 보임하는 방안을 건의한 바 있음.
- 대법원은 위와 같은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처음으로 지방권 가정법원장에 경륜이 풍부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보임하였음. 구체적으로 손왕석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대전가정법원장으로, 김태천 대구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대구가정법원장으로, 강신중 광주가정법원 부장판사가 광주가정법원장으로 각 보임되었음.
- 이를 통하여 평생법관제 하에서 지방법원 소속 판사들에 대한 장기적인 인사경로의 한 유형을 제시하고, 법관인사 이원화제도 하에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균형적인 발전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- 이로써 풍부한 경륜과 행정능력을 갖춘 법관이 새로이 가정법원장으로 보임됨에 따라 충실한 가사소년사건 재판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상당 부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.
-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법원장에 보임된 경우에도 법원장 임기제 및 순환

보직제를 적용하여 법원장 근무를 마친 후 지방법원 재판부로 복귀하여 재판업무를 수행할 예정임.

나. 지역법관제도 개선

-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또한 2012. 5. 11. 지역법관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이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면서, 권역내 지역법관의 과다현상을 완화하고 지역법관이 희망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타 권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하였음.
- 대법원은 위와 같은 건의에 따라 이번 인사에서 최초로 지역법관이 타 권역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각 권역별 인력수급 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역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도입하였고, 지역법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경향교류 법관을 많이 배치함으로써 지역별로 지역법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였음.
- 이로써 경향교류 법관과 지역법관 사이에, 나아가 서로 다른 권역의 지역법관 사이에 법률문화 교류가 활발해짐으로써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균질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원 전체의 재판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.

다. 하급심 재판역량 강화

- 이번 정기인사로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20여 명 증가하는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중견 법관들이 하급심재판을 맡을 수 있는 여건이 확대되었음.
-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합의부 재판장이 아닌 부장판사 80여 명을 전국 19개 본원 및 12개 지원에 고르게 배치하고, 법원장이 소속 법원의 사정에 따라 이들에게 영장재판, 형사단독재판을 비롯한 중요사건을 담당하게 함으로써, 이들을 통해 하급심의 재판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되었음.

라. 법관인사 이원화 정착

- 2011년 정기인사에서 처음 시행되었던 법관인사 이원화를 정착시키기 위해, 이번 정기인사에서도 희망과 적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연수원 25~27기 법관 중에서 24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함.
- 연수원 25기 4명, 26기·27기 각 10명이 새로 고등법원 판사에 보임되었고, 서울고등법원에 19명, 대전·대구·부산고등법원에 각 1명, 광주고등법원에 2명이 배치되어 재판업무를 맡게 됨.

마. 법조경력자 출신 임용 법관의 각급 법원 배치

- 개정 법원조직법 취지의 구현을 위하여 마련된 「법조일원화 실시에 따른 새로운 법관 임용 방안」에 의하여 2012. 12. 10. 자질과 품성이 검증된 5년 이상의 변호사, 검사 등 법조경력자 24명을 법관으로 신규임용하여 약 11주 동안의 강도 높은 신임판사 연수교육을 실시한 뒤, 본인의 희망, 경력, 연수원 기수, 신임판사 연수교육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국 법원에 배치하였음.

■ 법관인사발령 내역 : 별첨